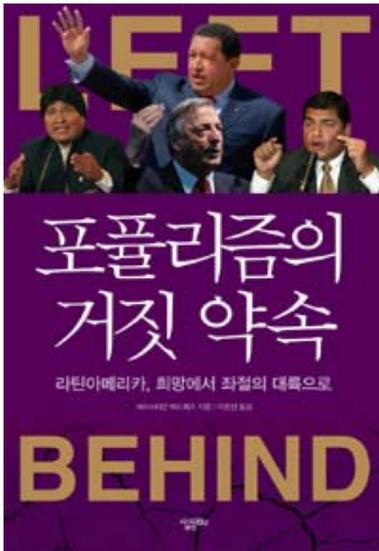


신간소개
Books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 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지은이) | 이은진 (옮긴이)

출판사: 살림

출간일: 2012-06-29

ISBN(13): 9788952219091

416쪽 | 223*152mm

사진 출처: 알라딘(www.aladin.co.kr)

장기적 관점에서 20세기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겪어야 했던 세계화의 실체를 낱알이 밝히고, 우고 차베스, 에보모랄레스, 라파엘 코레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정세와 역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포퓰리즘을 거부한 대표적인 정치인, ‘룰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시우바와 현대화 개혁, 자본주의, 경제 개방에 성공한 칠레의 사례를 살핀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1부에서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남긴 식민 유산과 영국의 지배를 받은 북아메리카의 식민 유산을 비교하고, 독자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1940년부터 1990년까지 반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겪어온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의 경험을 상세히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라틴아메리카에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이 진행된 배경과 과정,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기를 자세히 살피고 그 원인을 밝힌다.

제3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 드리우고 있는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 포퓰리즘, 불평등의 양상과 폐단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룰라의 브라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4부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하고 제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도래할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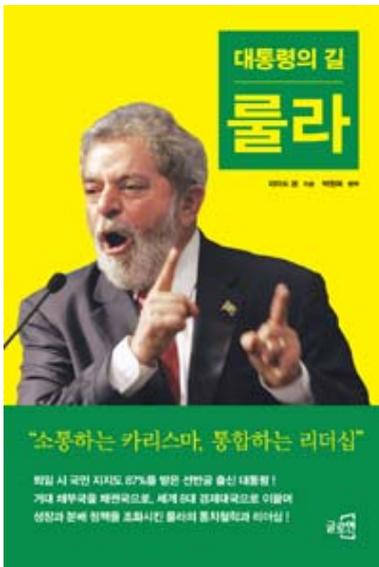


사진 출처: 알라딘

대통령의 길 룰라

리차드 본 (지은이) | 박원복 (옮긴이)

출판사: 글로연

출간일: 2012-06-26

ISBN(13): 9788992704373

424쪽 | 220*145mm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를 해온 저자 리차드 본이 취재를 통해 전달하는 브라질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룰라가 걸어온 드라마틱한 삶과 정치 역정. 룰라의 힘겨운 어린 시절은 물론 선

반공 노동자를 거쳐 노조지도자로서의 활동 과정, 노동자당 창당과 3번에 걸친 대선 도전과 실패의 정치역정, 대통령 당선 후의 리더십, 퇴임 후의 평가까지 그의 인생 드라마와 정치 역정 등이 담겨 있다.

즉흥 연설을 잘한 룰라 대통령은 특이한 행적만큼이나 매우 직설적이고 특별한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책에서는 화보 앞부분과 챕터 사이사이에 그가 남긴 연설문을 별도로 편집해 그가 한 말을 통해 인구 2억에 가까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룰라가 추구한 통치 철학과 리더십을 독자들이 감지해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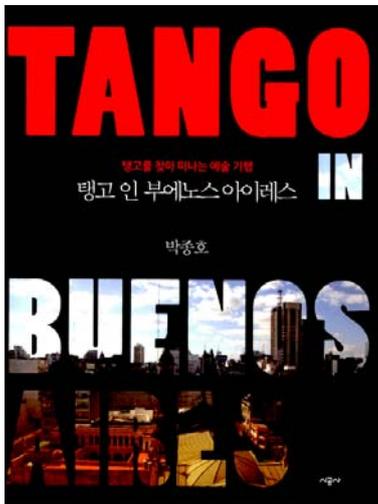


사진 출처: 알라딘

탱고 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 탱고를 찾아 떠나는 예술 기행

박종호 (지은이)

출판사: 시공사

출간일: 2012-04-23

ISBN(13): 9788952765130

436쪽 | 195*152mm

풍월당 대표이자 정신과 전문의, 클래식과 오페라 비평가인 박종호가 이번에는 탱고를 소개해 주기 위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향한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시간만 장장 24시간이 걸리는 낯선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곳에서 만난 탱고는 춤이자 음악이자 시이며,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관능과 좌절, 희망을 모두 간직한 삶 그 자체다.

원래 탱고는 ‘아르헨틴 드림’을 꿈꾸며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부두 노동자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서로 껴안고 추던 춤이었다. 유곽을 찾은 사내들이 육체의 위로는 받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을 주체할 길 없어 자기들끼리 탱고를 추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기 탱고는 주로 남자와 남자가 추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대개 산 텔모와 라 보카로, 제대로 된 탱고를 맛 보려면 이곳을 찾아야 한다. 특히, 라 보카는 가난한 부두 노동자들이 자투리 목재나 함석으로 집을 짓고 그 외관을, 쓰다 남은 여러 색의 페인트로 칠하는 바람에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재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독특한 원색의 풍경을 찾아 모여드는 명소이지만, 사실은 하층 이민자들의 고달픈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저자는 극장식 공연을 보여 주는 대형 무대부터 무용수가 손님 탁자 바로 옆에서 춤추는 소박한 장소까지, 이 지역의 유명한 탱고 바와 클럽들을 두루 소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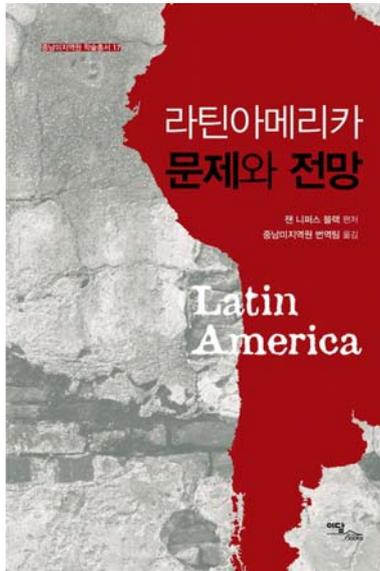


사진 출처: 알라딘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젠 니퍼스 블랙 (역은이) | 중남미지역원 번역팀 (옮긴이)

출판사: 이담복스

출간일: 2012-10-10

ISBN(13): 9788926838136

888쪽 | 223*152mm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17권. 이 책의 필진은 학문 분야에서든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로서든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항구적인 특성뿐 아니라 변화

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사회의 공통적인 양상뿐 아니라 주요 소지역과 개별 국가의 특징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마약과 외채의 충격적인 결과와, 이를 빌미로 삼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내정간섭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들은 또한 세기 전환기의 동향, 가령 수출부문의 역점화, 민영화의 압력,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축소, 경제성장의 질주, 지속적인 소득격차 증가,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새로운 위협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극심한 박탈감에 부응하여 일어난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과 사회운동세력의 급성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